

Dongguk for you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및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심포지엄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약제팀은 지난 16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공동주관으로 본원 5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마약류 사용과 관련 사회적 문제에 관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에 따른 최신 관리정책,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의료기기 이상사례 코드체계 현황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008년 식약처로부터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로도 지정됐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수집과 평가, 상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피해사례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과계중환자실, ‘안전이 우선이다!’ 환자안전을 위한 소방훈련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는 10월 13일 화재발생 시 환자안전 및 초기 대응능력향상을 위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외과계중환자실 격리실에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 발생 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또, 이후 화재 확대 시 자위소방대를 동원한 소화활동 및 환자 피난유도에 중점을 두고, 주요물품 반출 등에 대한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중환자실은 특성상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로 이뤄져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곳으로 무엇보다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외과계중환자실 수간호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의료진, 간호사, 자위소방대의 임무별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었다.”라며,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화재예방 활동 등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건강증진센터, 진관사 국행수륙재 의료지원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은평구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원만한 회향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의료지원은 불교병원으로서 스님들의 수행과 건강을 위하여 특화된 승가 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 홍보와 진료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신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무료측정도 실시했다.

이날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 치유를 위한 축제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불교의 공동체적 가치관이 함양된 국행수륙재를 원만하고 안전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해주신 동국대일산병원 의료진에 감사하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진관사는 조선 태조임금이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수륙사를 세우고 국행수륙재를 봉행하였으며 이후 600여 년 동안 수륙재 실행의 중심사찰로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불교 의례의 전통을 계승해오고 있다.



직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따라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은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은 보통 12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접종대상자는 11월이 지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 후 2~4주 후에 면역 효과가 발생하여 6개월 정도 지속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증상은 발열, 기침, 두통 등 일반적인 감기증상과 함께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쇠약감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합병증으로는 세균성 폐렴,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부전증, 천식,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켜 심각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의료인은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박성연 감염관리실장은 “평소,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에티켓 지키기,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는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